

# 광주 군공항 이전TF 첫 회의 임박... 합의안 도출 관심

## 민간공항 선이전·획기적인 인센티브 주목 시, ‘공자기금 활용’ 금융비용 절감 제안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테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이달 중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금융비 절감 방안을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7일 광주시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등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TF의

첫 회의가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셋째주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열리게 됐다.

광주·전남·무안 간 4자 사전 협의에서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에 따른 1조원 지원 방안의 이행 담보에 대한 결과, 정부가 3000억원을 부담하고, 광주시가 1500억원을, 나머지 약 5500억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3000억원을 군공항 이전 완료 전 ‘선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사전협의 결과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정부에서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 만큼 첫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군 공항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온 무안지역 시민단체도 최근 입장문을 내어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환영한다고 밝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TF회의에서는 사전협의에서 제시된 정부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서로 나누고 무안 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국가산단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연계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주민 지원 사업 재정 확보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요청한 금융비 지원책을 합의안에 담을 지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공자기금)’을 지원받아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수익금으로 용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준다면 금융비를 크게 아껴 기부대양여 차익금을 늘리고, 보다 수월하게 무안군에 1조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운용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기관에 대출하는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사업비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대구 등 다른 지역 군공항 이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 측에서는 실제 시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에는 한계가 분명하니, 국비를 투입하건 시비를 투입하건 결국 같은 세금이 쓰이는 만큼 공자기금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광주시는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중간 형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광주관광공사 사장 후보 정재영씨 내정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시관광산업 전략 수립 기대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정재영 KBC광주방송 광고사업국 부장(사진)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명 중 정재영 부장을 제2대 사장 후보로 최종 내정했다. 정 후보자는 오는 19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보고서가 채택되면 광주시장직에 최종 임명하게 된다.

광주관광공사는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이 통합 출범한 공기업



이다. 관광공사는 광주형 통합축제 브랜드인 ‘자·페스타(G-Festa)’와 전시·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30년 동안 지역 언론계에서 활동하며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뤄온 실무형 인사로, 광주 도시관광산업 전환기에 새로운 관점과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연말의 선풍, 따뜻한 12월 자활장터로 오세요” 5일 광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자활장터를 찾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자활장터는 10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이 참여했으며 자활생산품 판로확대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직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태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클라스 한결 변호사(사진)를 선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치는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제·국신설이나 군 의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있어도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북구의 미래 해법은 현장·골목에 있다”

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 출판기념회 성향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상필 부대변인(사진)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새물결에 나섰다.

문 부대변인은 지난 6일 광주 동신고 체육관에서 자신의 저서 ‘골목에서 찾은 미래’ 출판기념회에 3000여 명의 지역 인사와 지지자들이 몰려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양부남·정준호·민형배 국회의원과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직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장에인, 청년·소상공인 대표, 지역 경제 인사, 시민 등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또 정청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전을 전하고,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전현희 민주당 전 최고위원·박지원 최고위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전진숙·정진욱·조인철·문금주·이재호·서미화 국회의



원,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정선 교육감,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번에 출간된 저서 ‘골목에서 찾은 미래’는 문 부대변인이 광주시의원 재임 시절과 광주공동체 상임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북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한 정책 제언서다.

문 부대변인은 “북구의 미래의 해법은 현장, 생활, 골목에 있다”며 “시민의 삶에서 녹여나온 정책으로 지역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다음 세대가 머무르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설치 국비 확보

도, 내년 하반기 개소 목표...1만2000명 상담·치유 등 지원

전남도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6억 원을 확보하고, 2026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5·18 민주화운동), 제주(4·3 사건)에서 시범사업 후 본 사업이 운영 중이며, 전남센터 역시 동일한 모델을 도입한다.

이번 국비 확보는 전남도와 여순항쟁유족총연합회가 전남 동부지역의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센터 설치를 지속 건의한 결과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서 국가 책임하에 치유를 지원하는 첫 시도적 실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센터는 치유가 필요한 희생자·유족 1만 2000여명을 위해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교육 △미술·음악·월에·여행 운영 등이며, 전남센터 역시 동일한 모델을

△신체 재활 프로그램 등 치료·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비 추가 확보, 유족 총연합회·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해 센터 장소 선정, 세부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개소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트라우마 치유 사업이 늦게 시작된 감은 있지만, 희생자·유족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치료받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차영수 도의원, ‘세상을 들어올려’ 출판기념회 주민·독자·각계 인사 대거 참석...백운기·안진걸 토크쇼 호응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사진)의 자서전 ‘세상을 들어올려’ 출판기념회가 6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장은 이른 시간부터 참석자들로 가득 찼고, 뒤늦게 도착한 주민들이 입구 주변에서 발걸음을 멈출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출판 행사 형식을 넘어, 차 의원의 삶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백운기 전 KBS 앵커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참여한 ‘북 토크쇼’가 큰 호응을 얻었다. 두 패널과 차 의원은 자서전의 핵심 주제인 ‘고향 강진이 삶의 방향을 잡



아준 나침반 역할’을 화두로, 성장 과정과 의정 활동에서 만난 주민들의 이야기, 지역 변화의 사례 등을 진술하고 유쾌하게 풀었다.

차영수 의원은 “강진은 제 삶의 나침반이었고, 흔들릴 때마다 제 자리를 지켜준 버팀목이었다”며 “오늘 보내주시는 응원과 따뜻한 마음을 새로운 나침반 삼아 앞으로 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강진 발전을 위해 더욱 뛰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농촌서 살아가기’ 우수사례 전남 2곳 선정 진도 남도전원한옥마을 우수상·장성 별내리마을 입상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진도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 장성 별내리마을이 입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매년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에 등록된 농촌에서 살아가기 운영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운영 방식, 참가자 활동 내역, 참가자 만족도, 귀농귀촌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99개 마을 중 7개 시·도에서 18개 마을이 참가했으며, 서면 심사를 통과한 10개 중 상위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한 결과 진도 임회면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 장성 별내리마을이 입상상을 수상했다.

진도 남도전원한옥마을은 2013년 조성돼 주민의 80%가 도시 출신 귀촌자로 구성됐다. 13개 주택이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했으며, 마을 이해 프로그램, 지역 특색을 살린 국악·영농 체험, 지역 축제·문화예술행사 참여 등 활동으로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기수별로 균형 관계자와의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안내와 정책 정보를 제공한 결과, 참여자 중 39%가 실제 전입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 심사위원들

의 큰 호평을 받았다.

최종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전남에서 살아가기 사업은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전남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게 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거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에서 진행되며,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80만원, 장려상 40만원, 입상 3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은 전남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신규사업으로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됐으나, 2024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돼 각 시·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제명 대통령은 7일 최재태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클라스 한결 변호사(사진)를 선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치는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제·국신설이나 군 의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있어도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성모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박미정 “SRF 약취 대책없이 사용료 60억 편성은 부적절”

광주시의회가 12월 발표 예정인 SRF 약취 컨설팅 용역 결과와 구체적인 시설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포스코이앤씨(SRF 운영사)에 지급되는 연간 기본 사용료 60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사이에서 약취 원인·책임 공방과 시설 성능 논란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명확한 개선 조치 없이 사용료를 그대로 책정하는 것은 시민 신뢰와 책임 행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사진)은 5일 기후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종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 반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료를 전액 편성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SRF 약취 민원은 2025년 1~8월에만 820건에 달하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도 복합약취가 기준치의 최대 6배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게 확인되고 있다.

광주시는 약취 문제로 지난 8월 말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탈취 설비 강화와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나, 근본적 개선 가능성은 12월 발표될 용역 결과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